

<2012년 1월 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남녀가 사랑해서 생명이 잉태되어 10개월 동안 여자의 태 안에서 기르다가 낳았어도 관리 안 하면 즉시 죽는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사랑해서 신앙의 생명을 전도하여 낳았어도 관리 안 하면 즉시 죽는다.
2.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다 놓았는데, 아무도 쳐다보는 자가 없으니 즉시 나갔다.
3. 섭리사에 관리하지 못해서 나가는 생명이 1년 동안 수천 명이다.
4. 엄마가 아기를 낳고 관리하지 않으려면 낳을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전도해 놓고 관리하지 않으려면 전도할 필요가 없다.
5.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셨어도 주님을 믿게 만들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6. 우리 모두 주님이 전도하고 관리하셨기에 구원받은 것이다.
7.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전도해 오시고, 가르쳐 주시고, 관리하시어 우리를 구원받게 해 주셨다.
8. 다 해 주어도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기 싫다고 하며 세상으로 나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해서 믿다가 만다. 이같이 하여 지옥에 간 자들이 너무도 많다. 어쩔 수가 없다.
9. ‘관리’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10. 전도하는 것도 구원의 관리다.
11. 생명을 관리하다가 안 하니, 그 생명의 신앙이 바로 죽고 안 나오는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보았다.
12. 처음에 어릴 때는 관리해 주지만, 다 큰 자들은 자기 관리를 안 하니까 신앙이 죽고 믿음이 파선된 것이다. 그러니 어쩔 수가 없다.
13. 나무도 처음에 관리할 때 물을 주고 퇴비한다. 그러면 자기가 뿌리를 내려 땅속 깊이 뻗어가서 자체적으로 수분을 빨아먹어야 된다. 처음에 관리해 줄 때 나무가 뿌리를 뻗어 내리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 관리를 안 하면 즉시 죽는다.
14. 섭리사에 왔으면 처음에 관리해 줄 때, 자기도 연구하며 말씀과 기도와 실천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즉시 신앙이 죽는다.

15. 생명을 관리하다가 너무 힘이 빠져서 그냥 놔두면, 그날부터 즉시 사탄이 그 생명을 관리하게 된다. 신앙의 뿌리가 없으니 사탄이 인사탄과 함께 뽑아서 사망권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같이 되면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를 관리해서 돌아와야 산다.

16. 관리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다.

17. 다른 생명의 관리 시간을 빼서 관리하면 다른 생명이 관리받지 못하여 어려워진다. 저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관리해 주시는 기간이 있다. 자기 때에 부지런히 관리받고 커야 된다.